교통단속 강화 ≠ 사고 감소

운전자 의식·시설 개선이 더 효과적

광주 선진 교통문화 범시민운동 토론회

교통단속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속보다는 무인단속카메라, 도로 여건 개선 등 기반시설 정비와 운전자의 '바른 운전의식'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1일 오후 광주지검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안전 대책 토론회'에서 권석진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이 발표한 '교통사고와 단속의 상관관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교통단속은 8만2021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7.8%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발생은 623건, 사망자 12명, 부상자 1358명 등으로 각각 8.4%, 12.0%, 11.2% 등이 감소했다. 교통단속 증가와 교통사고 감소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전후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지난 4월13일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서구 광천초등학교 앞 인근은 5월 스쿨존 27건, 일반 238건의 단속건수를 보였다가 다음달인 6월 각각 17건, 108건으로 절반 정도 줄었다.

권 계장은 "운전자들이 주위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향이 짙다"며 "앞으로 교통사고 분석 등을 통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계절·장소·테마형 집중단속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전남 교통문화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광주대 최완석 교수는 이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학적·교육홍보·지도단속대책 등 3가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이 주최하고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광주발전연구원, 광주교통연수원, 손해보험협회 등의 관계자 20명이 참석해 지역교통문화 선진화 방안을 토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1일 오후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안전대책토론회'에서 지역교통문화 선진화를 주제로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광주경찰청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불법게임방·성매매 업소 연말 앞두고 대대적 단속

광주동부경찰

경찰이 연말을 앞두고 불법게임방과 성매매 업소 등 퇴폐향락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들 업소들이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시내 중심가에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민원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도시 이미지를 해친다는 판단에서다.

광주동부경찰은 21일 "연말연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분위기 속에 성매매업소와 불법게임장 등 유해업소들이 성업할 것으로 보고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18일 밤 10시께 대인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벌여 성매수와 성매매를 한 봉모(37)씨와 황모(여·25)씨,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전모(여·40·유흥주점 업주)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 일대에서 최근 다시 성매매가 성행한다는 첩보에 따라 불시단속을 벌인 것이다.

또 같은 날 금동 주택가 불법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게임물인 속칭 '야마토'(구슬치기 게임기)를 비치하고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박모(56)씨를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지난해 8월부터 '슈퍼맨'(고스톱 게임)을 제공해 사행행위 영업을 한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 피시방을 조사하기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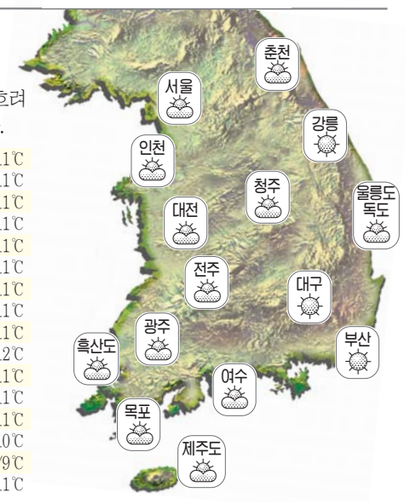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13분 해짐 17시 23분 달뜸 03시 27분 달짐 14시 55분

흐린 가을날

저기압의 영향으로 차차흐려져 늦은 밤에 비가 오겠다.

광 주	구름많음	3/11℃
목 포	구름많음	3/11℃
여 수	구름많음	5/11℃
나 주	구름많음	0/11℃
완 도	구름많음	2/11℃
구 례	구름조금	1/11℃
강 진	구름많음	1/11℃
해 남	구름많음	-1/11℃
장 흥	구름많음	-1/11℃
순 천	구름조금	4/12℃
영 광	구름많음	1/11℃
진 도	구름많음	1/11℃
전 주	구름많음	1/11℃
군 산	구름많음	2/10℃
남 원	구름많음	-2/9℃
흑산도	구름많음	8/1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먼바다	남~남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낮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남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1.0~1.5m

	밀물	썰물
목포	11:23 23:34	04:18 16:58
여수	06:35 18:42	12:38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최저/최고	7/9	1/8	3/11	3/14	7/15	10/15

초·중·고 비정규직 연봉 3.5% 오른다

내년부터 … 교통보조비 등 수당 신설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년 연봉이 3.5% 오르고 정규직이 받는 교통보조비 등 각종 직무관련 수당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초·중등학교 비정규직(이하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초중고 비정규직은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통상 '학교회계 직원'이라 불리며 학교장이 채용하고 일반노동법이 적용된다.

이들은 약 13만명으로 직종별로 급식종사원(45%), 교무 보조(6.9%), 특수교육 보조(4.6%), 과학 보조(3.6%) 등 30개 안팎의 형태가 있다.

학교회계 직원의 내년 연봉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5% 오른다. 직무관련 수당 6개는 신설, 1개는 증액돼 1인당 평균 14만~15만원의 수당을 받게 돼 연봉 8.5% 인상 효과가 있다.

신설 수당은 교통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보육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이며 장기근무가산금은 공무원 수준(월 5만~13만원)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북구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신안동 한국하이빌 등 선정

광주시 북구는 21일 '2011 북구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신안동 한국하이빌과 용봉동 I'PARK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24일 우수관리단지 인증 동판이 수여되고 유공자에게는 표창패도 주어진다.

북구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광주시회와 광주시건축사회에서 전문가 2명을 추천받기도 했다.

이번 선정된 신안동 한국하이빌은 2009년부터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추진과 입주민의 탄소은행 가입률 98%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에너지절약으로 녹색단지 조성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다. 또 용봉동 I'PARK는 지하주차장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해 에너지절약에 앞장서는가 하면 매년 주민들이 불우이웃돕기에 솔선하고 있어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됐다.

한편, 북구는 2008년부터 특수시책(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 일환으로 매년 2개 공동주택을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